

꽃았다. 촛대 各面마다에 花形文을 銀象嵌하였는데 比較的 保存狀態는 良好하다.

下盤內底에는 三條線으로 連結된 三角의 區劃을 八區로 하고 그 안팎으로 米字形 花文을 놓았고 그 안쪽으로 三條線 內輪을 두르고 그 안에는 글귀를 楷書로 써넣고 또 三條線의 內輪을 두르고 안쪽으로 雷雲文을 새겼다. 同緣에도 亦是 雷雲文을 線條內區에 配置하였다.

竿柱에는 上下端과 갈쭉한 中間部의 上下에도 雷雲文을 놓고 그 間地에는 樹葉文과 唐草文(?) 등의 무늬를 빈틈 없이 새겼다. 上盤周緣에는 雷雲文을 놓았고 呂字形 덧초꽃이 上下에도 各各 四區된 線條內에 形 무늬를 새겼다.

(二) 鐵製銀象嵌花文盤燭臺 一雙

總高二〇cm 下盤徑一五・二cm 초꽃이高二四cm

(一)과 形態 文樣이 모두 같으나 크기만이 적은데 덧초꽃이 部分만은 그 무늬와 形態가 조금 다르다 (一)은 덧초꽃이 呂字形인데 이것은 팔각의 圓筒形으로 생겼고 표면에는 亦是 四區된 線條內에 米字形花文이 있다. 以外에 防風扇에 雷雲文外郭內에 囍字를 嵌入한 燭臺도 있었으나 여

기서는 略하기로 한다. 이들은 大略 家庭用이었던듯한데 十九世紀頃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嵌入된 銀의 두께(鐵을 판 깊이)는 約1mm 未滿程度이다.

靑陽 大坪里 出土 石器

李 殷 昌

遺跡地(第一圖)(忠南靑陽郡木面大坪里田三九四番地)

出土地는 現地를 踏査하지 못하여 仔細한 것은 알 수 없으나 傳聞한 바에 依하면 今 春 國土建設事業으로 河川沙防工事中에 發見된 것이라 한다. 大坪里 出土地는 傾斜진 곳에 南北으로 主軸을 둔 支石墓群인듯한데 十基의 箱式棺이 列을 지어 있었다 한다. 其中 一八〇cm×九五cm×五〇cm 程度되는 箱式棺內에서 下記 石器가 나왔다는데 其他의 石郭 箱式棺內에서는 副葬品을 發見치 못하였다 한다. 그리고 이들 石郭棺을 全部라 헤치고 石器가 나온 墳墓의 巨大한 蓋石(人力으로 움직일 수 없다함)만이 남아 있다 한다.

發掘者 木面 大坪

里 居住 李鳳順 事業

主 大田市 大興 洞東

一 公社 金東日

(1) 有柄式石劍(第二圖(1)) 一個

二圖(1) 一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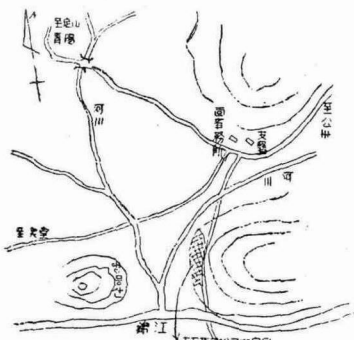
黑褐色 粘板岩(水

成岩)의 磨製石劍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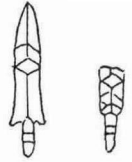
즉 劍身一九・五cm

柄部九cm 柄底五・

四cm의 數値를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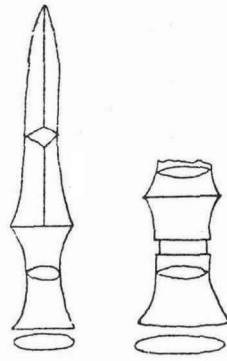


靑陽郡木面大坪里 石器出土地圖 (在靑陽郡木面大坪里)



는 것으로 劍身은 橫斷面 菱形을 하였고 鋒先과 兩刃의 날이 銳利하다. 柄部는 一段 柄式이며 柄部 橫斷面은 杏仁形을 하였다.

(2) 二段柄式石劍(第二圖) 一個



綠色 粘板岩의 磨製石劍인즉 잘 갈아서 光澤이 나며 아름다운綠色을 나타내고 있다. 劍身一部가 부러져 나가고 柄部 亦是 부러졌다. 現存長이 一四·八cm인데 劍身殘部는 不過三·三cm로 兩刃

을 이루었고 柄部는 一·五cm로 二段柄式으로 되었고 柄底는 八cm로 相當히 큰 石劍이었던 것으로 推測되는데 劍身, 柄部 多같이 橫斷面杏仁形으로 되어 있다.

(3) 有莖式柳葉形石鏃(第二圖(3)) 一個

灰黑色 粘板岩의 磨製로 鏃身은 陵線이 솟아 橫斷面 菱形으로 되어 있고 陵線은 鏃身과 莖部와의 接合 處에서 그치고 莖部는 橫斷面長方形으로 되어 있다. 總長 一一·七cm 鏃身長 一〇·二cm 莖長 二·五cm 鏃身部가 莖部보다 훨씬 길고 그 모습 멋있게 되어 儀仗品으로 形態上有 莖式柳葉形石鏃이라 하였다.

(4) 有柄式柳葉形石鏃(第二圖(4)) 一個 灰黑色 粘板岩의 磨製로 여러 토막으로 부러졌은즉 이를 모아 測定한 것이 現存長 六·四cm로 前者와 같은 手法이나 前者 有莖式柳葉形石鏃에 對하여 이는 有柄式柳葉形石鏃이라 하겠다.

## 梁山彌陀庵의 石佛立像

鄭 永 鎬

梁山郡熊上面 召周里 千聖山彌陀庵①에 石佛이 一軀 遺存하는데 지 난 一月 洪思俊氏와 함께 調査하였던 바 그 樣式이나 手法 등이 古調하고 優秀하기에 貴重한 資料로서 紹介하려 한다.

佛像은 天然岩窟內에 安置되었는데 入口(徑約二·六m의 洞穴)로 부터 約九m되는 處에 四階石壇(層高 一四九cm)을 마련하였으며 그 後方은 長三·四m의 窟이 連해 있다.

光背와 蓮花臺座等 全體를 單一石으로 彫刻하였고 半肉彫의 正面直立한 說法印의 阿彌陀如來像(總高 一一〇五cm)인데 原位置인 本尊으로서 庵名도 여기에서 由來된 듯하다.

佛像의 高 一四九cm로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耳는 어 깨위까지 길게 느러졌으며 三道가 있으나 白毫는 없다. 通肩한 天衣는 圓弧를 그 으면서 두 어깨로부터 流麗하게 全身을 감쌌으며 兩腕을 걸쳐 내려진 衣端은 양 옆으로 펼쳐있고 胸前에는 裙衣의 結帶가 보인다.

手印은 左手를 垂下外撐하였으며 右手는 胸部에 대고 母指와 人指를 接한 說法印이다. 兩足은 들 어났는데 足指 등이 肉重하며 鈍厚하다.

